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람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제15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13. 기뻐하며 경배하세 .....	다함께
----------------	---------------------	-----

♠ 공동기도 .....	다함께
--------------	-----

자비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여전히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마음은 무더질 대로 무디어져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도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세상일에 시달리다 보니 우리 마음은 갑각류를 닮아갑니다. 자신을 지키는 데는 능숙하지만, 사랑하는 데는 미숙한 저희들입니다. 어려운 이들 곁에 다가가 그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는 정 깊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들 속에 잠들어 있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활짝 피어내 세상을 향기로 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	사58:11 .....	인도자
----------------	--------------	-----

♠ 교 독 문 .....	40. 이사야 58장 .....	다함께
---------------	-------------------	-----

♠ 영 광 송 .....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함께
---------------	---------------------	-----

대표기도 .....	I. 유경순 집사    II. 한완식 장로
------------	-------------------------

응 답 송 .....	성가대
-------------	-----

찬 송 .....	347. 겸손히 주를 섬길 때 .....	다함께
-----------	------------------------	-----

성경봉독 .....	I. 눅18:9-14 .....	인도자
	II. 눅9:51-56 .....	김 극 집사

찬 양 .....	성가대
-----------	-----

말 씬 .....	I. 내향화와 외향화 .....	최인환 전도사
	II. 마음을 넓히라 .....	김기석 목 사

거둠기도 .....	다함께
------------	-----

헌신의 찬송 ..... 505.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 다함께  
 헌금봉헌 ..... <연주: 이일주> ..... 다함께  
 ♠ 봉 헌 송 ..... 356. 성자의 귀한 몸(4)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속 좁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넓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공간을 마련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하기보다는, '오늘 무슨 좋은 일을 할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너그러운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성령이여, 이런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녹색 청파를 위한 녹색 제안>	에베소서 강해(18)
강사: 양재성 목사	기도 : 차혜심 권사

<b>다음 주 예배위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조윤숙 선생 구성실 장로	인도자 권미정 집사

<b>8월</b>	영접위원	한상익	김홍기	홍순구	최숙화	이형숙	이춘희
	헌금위원	방문성	박창운	안길상	임창선	김명순	박효선

##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

만약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노력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거나, 우리를 “보다 풍성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않는다면, 그러한 노력은 아마 해로운 것은 아닐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몸소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가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자신의 삶을 사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만약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따르거나 본받아야 할 본보기를 남겨 주시는 데 그쳤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분명 이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협력자로서 소유하는 것이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얻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것이다. 바울은 이 위대한 특권을 한 마디로 요약하여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2:13)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감화력’이나 ‘영적인 힘’이 아니라 믿는 자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는 때때로 ‘재산을 소유하라는’ 간청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한 신도들을 모두 초대하여 그들을 **소유하신 자**—곧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 모두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라고 권해야 할 것이다. 사실 ‘본받는다’는 말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의 본받음은 분명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빌1:21)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골3:4)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주께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소유하여 완전하게 주관하실 수 없으시다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

내가 소년들에게 말을 건넬 때 사용하던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나는 이렇게 질문한다.

“너희들은 아무개(축망받는 축구선수)처럼 축구를 잘하고 싶니?”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건 매우 간단하다. 그를 본받아라.”

“그럴 수가 없어요, 선생님.”

“만약 내가 너에게 그 선수가 가진 힘을 모두 준다면, 너는 그만큼 잘할 수 있지 않겠니?”

“아니오, 선생님, 우리에게는 그가 갖고 있는 기술이 없어요.”

“만일 그의 힘과 아울러 그의 정신—정기를 관리하고 주도하며, 그에게 기술을 주는 정신—까지 너희에게 준다면 어떻겠니?”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람만큼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소리쳤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그의 모든 자녀에게 기대하시는 행동이다. 주님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 안에서 선한 생각을 하며 너희 안에서 일하며 너희로 그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하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이다. “누가 너희 안에 거하겠는가?” 하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신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전 2:16)고 담대하게 말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위로부터 온 능력’을 함께 갖고 있어 그 마음의 계획들을 실행할 수 있다면, ‘거룩함’은 우리의 제2의 천성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된다.

—미지의 그리스도인, <<승리의 삶>>

매일매일은 성숙을 향한 여행길의 흥미로운 첫발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세월의 진행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늘 조금 더 성숙해질 기회는 있게 마련이지요. 단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 돈은 줬으면 그만

장일순이 아홉 살 때 일이다. 장일순은 그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나눈 다음과 같은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무개가 돈을 꺾가고는 안 가져옵니다. 제가 가서 독촉을 할까요?”

“가지 마라. 너도 자식을 키우잖니? 돈은 줬으면 그만이지 달라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갚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갚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달래면 돈은 받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잃고, 또 갚을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어 못 갚는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니. 그러니 그런 슬기롭지 못한 짓은 하지 마라.”

## 손님을 하늘처럼

최정환은 오래 원주시내의 변화가에서 ‘천석’이라는 밥집을 경영했다. 그 밥집을 시작할 때 장일순은 최정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니가 여기서 손님을 하늘처럼 섬기며 쟁반을 3년만 나르다 보면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아주 큰 도인이 될 것이다.”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는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리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하늘의 일로 여기고 정성을 다하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서 큰 깨우침을 얻을 수 있으리라. 크게 자랄 수 있으리라.

—최성현, <<좁쌀 한 알>>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성가대장 : 한상의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윤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김춘려 조병무 송양진 김용진 박효선 임승동 백혜숙 김용원 김정길  
 최숙화 이인웅 최종원 정완수 김재광 박영숙 임창선 박옥순 임 영  
 정경례 김혜권 김중훈 안경숙 강인식 김정숙 고광송 이춘희 이선림  
 임보람

### 월정헌금:

이지훈 오현정 조항범 황원순 황자순 김성자 조항신 전영자 이경남

### 감사헌금:

장영숙 강인식 김정숙 한상익 정영선 최주환 박영희 김윤정 김민용  
 한혜선 윤여준 백묘현 박병수 임원민 박찬정 최동운 정진경 김중훈  
 안경숙

### 생일감사헌금:

박성수 김애경 이유선 장재영 김재영 김대근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심	연 합 속 회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예배 후 8월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2. **신앙강좌** : 오늘 오후 집회는 신앙강좌로 모입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의 양재성 목사님이 <녹색 청과를 위한 녹색 제안>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3. **연합속회** : 9월 2일(금) 오전 11시에 모입니다.  
예배인도 - 베들레헴 속 식사준비 - 다메섹 속
4. **봉사** : 애니아의 집 목욕봉사에 동참해주십시오. 9월 2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5. **찬양제** : 성가대가 주관하는 가족 및 속별 찬양제가 다음 주일(9월 4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신청해주십시오.
6. **신앙실천** : 가을의 초입입니다. 아름다운 가을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덜어내야 합니다. 각자 자기 삶의 군더더기가 무엇인지 잘 아시지요? 그것을 잘라내 주님께 바치십시오.

\* 식당 봉사 : 에베소 속

\* 헌화 : 김애경 권사(남편 생일)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